

민주 첫 경선지... 대선 주자들 주말 호남대전

文 전주 지지모임 출범식 참석 安·李 광주서 후보 토론회 후보들 맞춤형 메시지 고심 공개 토론 놓고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이번 주말 호남에 몰려들어 텃밭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 달 실시될 예정인 민주당 권역별 경선의 출발지이자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 민심의 지지 없이는 '대선행 티켓'을 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호남 맞춤형 메시지와 일정 잡기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당내 주자들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이달 12일에는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 참석차 전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광주 DJ 센터에서 전국광역·기초의원협의회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가 예정돼 있지만 문 전 대표는 포럼 출범식 때문에 현재로서는 참석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문 전 대표를 추격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광주를 찾아 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하면서, 문 전 대표도 참석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안 지사는 오는 11일 목포에도 들 예정이며, 12일에는 광주에서 첫 경선 선대본부 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시장은 지난달 31일 호남을 방문한 바 있다. 특히, 이 시장의 부인인 김혜경 씨는 수시로 호남에 내려가 주민들을 만나는 등 텃밭 민심 다지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단 문 전 대표 진영에서는 경선을 앞두고 '포럼 광주'에 이어 '새로운 전북 포



안희정, 청춘들과 셀카타임 안희정 충남지사가 6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럼' 등 호남 조직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호남권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 대세론을 단숨에 고착시켰다는 계산이다.

호남의 상당수 지역위원장들이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다 외곽 지원 조직도 속속 갖춰지면서 '반문'(반 문재인) 정세가 크게 완화되고 있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 지사에게도 호남은 최대 승부처다. 첫 지역인 호남에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선전을 거둬 경우, 두 번째 경선이 자신의 안방인 충청권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번을 연출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최근 지지율이 추중하고 있는 이시장은

계 호남에서의 선전은 분위기 반전을 위한 가장 절실한 카드다.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소위 이재명 현상은 '첫 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시장은 촛불 정국에서 바람을 일으킨 특유의 선명성에 호남 지지까지 더해지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도 호응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안 지사와 이 시장 측에서는 문 전 대표의 조직세가 크지만 아직 호남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강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맞춤형 공약과 메시지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안 지사와 이 시장 측에서는 12일 광주 토론회에 문 전 대표가 불참하는 것

과 관련,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치열한 토론으로 호남에 대한 선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에 문 전 대표가 불참하는 것은 대세론에 안주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것이다.

또한 경선의 역동성이 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도 호남 민심 저변에는 '비문'(비 문재인) 정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대세론을 뒤 흔들 이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여기에 결선투표제가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주자들 모두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손학규 2박3일 호남서 세몰이

오늘부터 전북-여수-순천-광주 강행군

손학규 국민주권회의 의장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앞두고 7일부터 2박3일간 호남을 방문해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손 의장은 7일 전주를 찾아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 타운홀 미팅을 통해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주창해온 개헌 및 개혁세력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그는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역시 정치현안을 공유한 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원을 방문해 전북의 핵심 지역산업으로 꼽히는 탄소산업 현황을 둘러본다.

이어 8일에는 전남으로 발길을 옮겨 여수를 방문, 수산인들과 간담회를 가



진 뒤 순천으로 이동해 지역 기자들을 만나 개혁세력과 개헌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또 국민주권 개혁회의 전남 동부권 결성대회에 참석해 전남지역에서의 본격적인 세력 규합에 나설 계획이다.

9일에는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방문해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 대선주자 토론회에 참석한다. 그는 이후 나주로 이동해 농업인들과 만나 국내 농업 실정과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지역 재래시장 등을 둘러 밑바닥 민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文 전인범 영입 5·18 정서 어긋나”

국민의당 비난

국민의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캠프가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한 데 대해 “왜 문 전 대표를 특전사 코스프레를 포기하지 않고 집착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영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우리가 5·18(광주 민주화운동)의 상처를 갖고 있고,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특전사에 매달리고 있는 가만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전 특 전특전사령관은 2014년 9월 공수여단(장)에 취임하

자마자 군인들을 포로처럼 훈련시켜 두 명을 사망시킨 전력이 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금지해왔던 것인데, 신발 주머니로 얼굴을 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점검하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14년 9월 2일 포로처럼 훈련을 받던 특전사 부사관 2명이 호송관대로 사망한 ‘특전사 포로처럼 실사’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

이어 “만약 이런 분을 우리당이 영입했다면 패권의 사비버 테러단체인 어떤 일을 했을가를 생각할 때 ‘자기 가만 로앤스’는 말이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며 “진문(진문재인) 열성 지지자 들까지 겨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저임금 1만원…고위직 임금 제한”

심상정 공약 발표

정의당의 대선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6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높이고, 최고임금법을 도입해 고위직직원 임금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심 상임대표는 “2000만 노동자의 평균 월급을 237만원에서 63만원 올리겠다는 것이다. 전장을 낮추고 바닥을 끌어올린 것이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상용직 평균급여를 60%를 최저임금 하

한선으로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 최고임금법, 일명 ‘살한 고양이법’을 도입해 고위직원들의 과도한 임금이 공공부문은 최저임금의 10배, 민간기업은 3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고 제안했다.

심 상임대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겠다”면서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형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고, ‘사업장 내 근로자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금차별 수단으로 악용되는 포괄임금제를 폐기하고, 기본급 비중을 줄이고 복잡한 수당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남경필-유승민 ‘보수단일화’ 놓고 설전

남 “새누리과 단일화는 해당 행위”…유 “입장 불변”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남 지사는 이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현시점에서 보수후보 단일화, 특히 새누리당을 포함한 보수후보 단일화를 반대한다. 있을 수 없다”며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의 당대당 통합은 불

가하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새누리당과의 보수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남 지사는 “바른정당이 ‘새누리당 시즌 2’라는 오해를 산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오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다시 합치겠다’나. 뒷 때문에 바른정당으로 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남 지사는 그동안 새누리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연정’을 제안해왔다.

뒤이어 발언 기회를 잡은 유 의원은 말없이 웃으며 남 지사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전날 자신이 발표한 청년 창업 공약을 설명해나갔다.

그러자 남 지사는 유 의원을 향해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말씀이 없다”고 몰아붙였고, 유 의원은 “저는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말씀 드리지 않는다”고 무시했다.

이에 남 지사는 “새누리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말하는 것은 해당행위”라고 재차 공격했고, 유 의원은 먼저 자리를 떴다. 유 의원은 회의를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 논의에 응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은 오는 8일 국회의 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보수후보 단일화 문제를 토론키로 했다.

한편,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확정은 아니지만 3월24일까지 후보를 선출하는 일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오는 20일까지 경선관리위원회 주도로 ‘경선물’을 포함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을 확정하고, 21일 경선 관련 사무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기로 했다. 22일부터는 당내 경선 주자들이 예비 후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70㎡ 현 신발대리점 입점 매 20억원 (보5천, 월9백만 포함)
- 월계동 2층 상가점포 195㎡ 현 뷔페 입점 매 5억5천 (보3천, 월240만 포함)
- 월계동 3층 상가점포 500㎡ 매 8억5천 (학원, 독서실, 헬스클럽 적합)
- 선암동 1층 상가점포 102㎡ 매 5억원(조정가)
- 나주 혁신도시 1층 상가점포 123㎡ 매 9억4천(조정가)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 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 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480㎡ 매 9억8천 (보6천5백, 월400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90㎡ 건462㎡ 매 10억3천 (보4천4백, 월400만 포함)
- 신가동 3층 원룸건물 대300㎡ 건441㎡ 매 8억원 (보3억2천, 월115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지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화정동 대지 980㎡ 매 49억원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통 서금요법·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서금요법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태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롬, 서암염뜸기, 아쿠뎀,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유태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특가 48,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한국의 180여 지회를 이용 바랍니다.